

사이버공간의 익명성이 청소년언어폭력에 미치는 영향 : 기존 요인들과의 비교

이 성 식*

초 록

이 연구는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이 청소년언어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다룸에 있어 익명성외에 기존 청소년비행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요인들을 함께 고려하여 어떠한 요인이 보다 설명력이 높은가를 살펴보고 한다. 기존의 오프라인상의 폭력비행연구들에서 강조되어 왔던 요인들은 가정환경요인이나 비행친구와의 접촉, 폭력용인태도, 자기통제력 등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특별히 주목하고 있는 것은 사이버공간에서의 언어폭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익명성과 아울러 그러한 요인들이 필요충분조건으로서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에 있다. 이 연구는 사이버 언어폭력에 대한 통합론적 설명을 제시하여 이를 경험연구를 통해 검증해보려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결과에서는 익명성의 영향력이 유의하였고, 비행친구와의 접촉과 자기통제력이 익명성과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익명성과 사이버언어폭력에 대한 태도는 서로 상호작용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두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주제어 : 사이버공간, 익명성, 언어폭력

* 숭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 부교수

I. 서 론

정보화의 진전으로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공간은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생활의 장이 되고 있다. 인터넷의 보급은 청소년들에게 많은 정보와 지식, 그리고 편의이외에도 게임과 같은 놀이, 그리고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는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과, 대화, 만남을 가능하게 하였다. 따라서 현실에서 소외를 경험하는 아이들은 인터넷에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되고 있다. 그러나 정보화 역기능의 하나로 사이버공간상에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은 급속히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그 심각성에 대한 우려도 높다. 최근 이러한 문제의 확산으로 사이버공간상에서 일어나는 청소년들의 문제, 일탈행동에 대한 실태나 원인과 대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그 중 다른 여러 유형보다도 우리는 사이버공간에서 난무하는 욕설, 비방, 심지어 위협에 이르는 언어폭력을 가장 많이 목격하게 된다.

사이버공간에서는 현실의 면대면상황과 달리 텍스트만이 제공되기 때문에 현실에서 규정된 사회적 지위나 성, 인종에서 벗어나 차별이나 제약 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토론에 참여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다. 더구나 실명이 아닌 익명성이 보장될 때에는 더욱 자유롭게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사이버공간이 지니는 이러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사이버공간에서 익명성을 보장할 경우 게시판, 채팅, 이메일 공간에서 비이성적이고 즉흥적으로 아무 글이나 띄우는 것을 조장할 수 있고, 또 인신공격, 욕설, 비방, 명예훼손 등을 일삼게 한다는 우려가 높다.¹⁾

1) 물론 엄밀히 말하면 사이버상에 익명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이디가 실명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것을 추적할 경우 발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적어도 실명이 아닌 아이디만을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그 아이디만으로 외관상으로 본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행위자는 익명의 상황으로 인식하고 실명의 상황과는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다.

이 연구는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언어폭력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밝히려는 데에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그런데 흔히들 많은 문헌에서 사이버공간에서의 문제행동은 익명성 때문이라고 주장되고 있듯이(Lea et al., 1992; Postmes and Spears, 1998; 국내연구는 김봉섭, 1998; 김경원, 2000; 박인우, 김미향, 2000; 최영, 이종민, 김병철, 2002; 이철선, 2003; 이성식, 2004), 이 연구는 과연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상황의 여하가 청소년들의 언어폭력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는지 실제로 경험연구를 통해 살펴보고 싶다.

그러나 사이버 언어폭력은 개인외적인 상황요인으로서 익명성외에 그것과는 독립적으로 개인의 사회환경 및 성향요인인 다른 여러 원인들이 존재할 수 있다. 사이버 언어폭력이 하나의 문제행동이라고 한다면 익명성외에도 기존 문제행동연구에서 강조되어 왔던 원인들이 작용할 것이며, 특별히 그것이 신체적 폭력이 없을 뿐 일종의 폭력행동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면 폭력행동과 연관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연구는 기존의 오프라인상의 폭력비행연구들에서 강조되어 왔던 가정환경요인이나 비행친구와의 접촉, 폭력용인태도, 충동성과 같은 요인들을 고려할 것이다. 그리고 사이버 언어폭력을 설명함에 있어 익명성과 다른 주요 원인들의 영향력을 상호 비교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특별히 주목하고 있는 것은 사이버공간에서의 언어폭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익명성과 아울러 그러한 기존 요인들이 필요충분조건으로서 동시에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에 있다. 이 연구는 이처럼 사이버 언어폭력에 대한 통합론적 설명을 제시하여 이를 경험연구를 통해 검증해보려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사이버공간의 익명성과 언어폭력의 관계에 관한 주요 논의들

사이버공간의 익명상황은 사이버 언어폭력의 원인이 될 수 있는가? 이와 관련된 입장으로는 여러 이론들이 있다. 여기서는 이들의 주장들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1) 몰개성화이론

익명의 상황은 어떠한 이유로 언어폭력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인가?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론으로는 몰개성화이론(deindividuation theory) (Zimbardo, 1969; Kiesler et al, 1984)이 있다. Le Bon의 군중연구에서 흥분한 군중 속에 파묻혀 있게 되는 경우 자신이 드러나지 않음으로 인해 과격한 행동을 쉽게 할 수 있다고 하듯이, 익명의 상황에 놓이게 될 때 사람들은 내적으로 구속됨이 없이 탈억제되고, 공격적인 언행을 하게 된다고 주장된다. Zimbardo(1969)가 그러한 몰개성화의 주장을 제시한 이래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이 과연 어떠한 이유로 탈억제된 현상을 유발하는지에 연구가 제시되었는데, 이후 주장들에 따르면 익명의 상황은 자아의식의 작용을 감소하게 만들고 또 자기규제를 어렵게 함으로써 탈억제를 촉진한다고 했다. 즉 익명의 상황에서는 자신의 얼굴은 물론 신분이 노출되지 않게 됨으로 해서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게 되며, 아울러 평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내적인 사회금기와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이 평소 생각해 왔던 내적 기준과 달리 자기절제하지 못한채 무책임하고 반규범적인 절제되지 않은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Prentice-Dunn and Rogers,

1982; Kiesler et al., 1984). 이후 보다 최근에 Postmes와 Spears(1998)의 메타분석에서 보면 대체로 익명의 몰개성화의 상황은 반규범적 행동의 가능성을 높인다고 밝히고 있고, 국내의 이성식(2004) 연구도 익명의 상황에서 자아의식은 낮아지고 보다 충동적이 되면서 자기절제하지 못하고 사이버 언어폭력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몰개성화논의는 사회구성원들이 속해 있는 집단의 규범과 같은 사회환경의 영향력에는 다소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Fulks et al., 1990).²⁾

2) 사회정체성이론

사회정체성이론(Social Identity model of Deindividuation Effects (SIDE))에서는 몰개성화의 논의와는 반대로 익명의 상황이 반규범적 행동을 야기하기보다는 그리고 개인적 정체성을 활성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집단의 사회정체성을 활성화시킴으로 해서 집단의 규범에 동조하게 할 수 있다고 보았다(Lea et al., 1992; Reicher et al., 1995). 이 이론에 따르면 익명의 상황으로 흔히 자기존재의 정체성을 상실하지만 어떤 사람이 사이버공간 속에서 특정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는 익명의 상황에서 집단정체성이 강하게 형성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그 집단의 규범에 따라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 집단에서 보면 익명의 상황은 반규범적 행동보다는 오히려 집단동조의 행동을 야기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이론은 어느 팬사이트의 청소년들이 경쟁상대의 연예인 사이트에 언어폭력을 하는 경우나 안티사이트에서 일정한 사람, 집단을 공격

2) 한편 사회실재감(Short et al., 1976) 및 사회단서 부족 이론(Kiesler et al., 1984)에 따르면 사이버공간에서는 면대면과 달리 상대가 텍스트 상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실재감이 매우 낮고, 외모, 지위, 비언어적 단서가 부족하여 상대를 덜 친밀하게, 그리고 더 업무적으로 만나게 되며, 자기중심적이고, 사회규범의 영향력이 약화되어, 규제되지 않은 행동의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이들 이론은 사이버공간 전반의 특성에 관한 논의이고 익명상황에 대한 논의는 아니라 할 수 있다.

하는 경우를 잘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이론은 인간의 행동에 있어 집단소속의 영향을 다뤘다는 점에서 몰개성화 논의보다는 진전된 것이라 볼 수 있으나 경쟁집단과의 갈등에서 비롯되는 일부 언어폭력만을 설명하는 점에서 어느 정도 한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자아의식이론

사이버공간의 익명의 상황은 반드시 반규범적이고 자기조절이 불가능한 행동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있다. 익명의 상황에서는 전반적으로 자아의식이 모두 낮아질 것이라는 몰개성화이론과 달리, Matheson과 Zanna(1988)의 자아의식이론(two-component self-awareness model)에서는 자아의식은 공적 자아의식과 사적 자아의식으로 구분될 수 있고, 또 그들은 서로 수직적이어서 한쪽이 높으면 다른 쪽은 낮아진다고 했는데, 익명의 상황으로 공적 자아의식의 감소가 일어나지만 사적 자아의식은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그럼으로 인해 익명의 상황은 남의 시선에 신경쓰지 않게 되지만, 오히려 자신의 내적 소신과 태도대로 행동하게 만들기 때문에 행위자들은 자기조절을 하여 행동한다는 주장을 제기한다. 그렇지만 이 이론은 행위자의 소신과 내적인 태도가 친규범적인가 혹은 반규범적인가를 고려하지 못한 단점이 있다. 즉 사이버 언어폭력이 허용될 수 있고 그다지 나쁜 행동이 아니라는 태도를 갖는 사람의 경우는 익명의 상황에서 사적 자아의식의 작용으로 자신의 태도(친언어폭력적 태도)대로 언어폭력을 저지르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4) 억제/합리적 선택이론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의 상황에서는 심한 명예훼손적 공격을 하더라도 발각의 위험이 낮기 때문에 공식처벌의 두려움이 작용하지 않게 된다. 억

제이론가 혹은 합리적 선택이론가들은 사람들의 행동이 처벌의 정도, 특히 얼마나 발각이 되는지의 확실성의 정도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라 보았는데(Tittle, 1980), 이 입장에 근거한다면 익명의 상황에서는 실명의 경우와 달리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고, 따라서 발각과 처벌의 가능성이 낮아 자신의 반규범적 행동을 큰 두려움 없이 표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익명의 상황의 경우 자신의 언행에 대해 상대방으로부터 물리적 보복이 없다는 사실이 사이버상의 언어폭력을 야기할 수도 있다. 폭력의 경우는 상대의 힘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폭력여부가 결정되기도 한다. 합리적 선택이론에서 보면 상대의 힘이 커서 반격이 우려될 때 손실의 작용으로 아무리 화가 나도 폭력을 망설이게 된다. 그렇지만 상대가 신체적으로 작거나 물리적 보복의 우려가 없을 때 거리낌 없이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Felson, 1996). 사이버공간은 상대와 면대면이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익명의 상황에서는 물리적 손해나 보복의 위협이 더 적다는 점에서 언어폭력의 가능성은 더욱 높을 것이다.

2. 기존 비행연구에서의 이론들

사이버상의 언어폭력이 일종의 비행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 원인은 사이버공간의 익명의 상황이라는 요인이외에 전통적인 주요 비행이론에서 강조되어 왔던 요인으로도 설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기존의 주요 이론들에서는 청소년들이 자라온 사회환경 요인이나 개인성향 등의 요인들을 강조하여 왔다. 사이버 언어폭력을 이러한 요인들과 연관지워 논의한 연구는 그동안 없었지만 여기서는 그 요인들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차별접촉/사회학습이론

욕설, 비방, 언어폭력을 일종의 공격행위이면서 폭력적인 행동의 한 유

형이라고 볼 수 있다면, 사이버언어폭력에 대해 그동안의 이론 중에서 폭력을 설명하는 데 가장 각광을 받아온 하위문화이론이나 차별접촉/사회화습이론의 논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이론들에서는 폭력을 용인하고 그것이 정당화되는 환경에 있게 되는 아이들이 그것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학습하여 그것이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폭력을 행사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여러 환경 중 가정환경은 중요한 환경이 되어, 부모로부터 체벌과 폭력, 그리고 강압적인 양육을 받아온 아이들은 강압적인 폭력방식을 학습하게 되는데(Patterson, 1982), 부모로부터 학습한대로 대인갈등의 상황에서 문제상황을 폭력과 강압적 방식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상대에게 폭력을 더욱 저지르게 된다고 주장된다(Widom, 1989; Heimer, 1997). 폭력의 학습은 가정외에 폭력적인 학교환경으로부터도 학습 가능하며(Felson et al., 1994), 또한 비행친구와 접촉할 경우 폭력을 더욱 용인하는 태도를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차별접촉이론에서는 비행친구와의 접촉을 폭력을 포함한 비행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다루어 왔는데, 비행친구와 만날수록 그만큼 친비행가치나 폭력용인태도를 학습하게 되고 그것을 내면화하면서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고 주장되고 있다(Matsueda, 1982; 이성식, 1998). 특별히 사소한 지위비행보다 폭력과 같은 심각한 수준의 비행은 비행친구와의 접촉의 영향력이 중요하다고 한다. 이 이론대로라면 사이버공간에서 폭력을 어느 정도 용인하는 사이트와 환경에 접하게 되는 청소년들은 그러한 행동을 학습하고 용인하여 언어폭력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일상생활에서 폭력환경에 자주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은 평소 폭력을 허용하는 태도를 갖고 그럼으로써 사이버상의 언어폭력도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가운데 그 행동을 저지르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리고 결국 사이버상의 언어폭력은 환경에서 학습한대로 그것이 크게 나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에 의해 저질러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이론대로라면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익명의

상황과 관계없이 상대에게 언어폭력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 할 수 있다.

2) 사회유대이론

한편 또 다른 주요 이론으로 사회유대이론(Hirschi, 1969)에서는 청소년들의 사회유대, 예컨대 부모와 청소년들간의 애정관계가 비행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본다. 사회유대이론에서는 차별접촉이론에서처럼 비행을 촉발하고 유인하는 요인보다는 비행을 통제할 수 있는 부모와의 유대관계와 같은 요인을 강조해 왔다. 즉 청소년들은 언제 어느 우연한 상황에서 장난이나 호기심, 혹은 상대에 대응하는 가운데 비행이나 폭력을 저지르게 되는 상황은 많겠지만 부모와 유대가 강한 아이들은 그러한 경우에서도 쉽게 폭력을 저지르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것은 자신이 폭력 등의 행동을 저지를 경우 자신과 유대를 형성하고 있는 부모가 크게 실망하거나 그럼으로써 자신과 부모와의 관계가 크게 손상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와 같이 부모와의 강한 유대는 비행의 동기를 통제할 수 있는 주요 설명요인이 되어 부모의 애정이 부족하고, 또 부모에 대해 애착이 낮은 아이들은 폭력을 포함한 비행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되고 있다(Cernkovich and Giordano, 1987). 사회유대이론에서는 부모와의 유대뿐만이 아니라 선생님과 유대나, 또한 학교공부와의 관여, 투자의 정도도 그러한 이유에서 청소년들의 비행 여부를 설명할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다루어져 왔다. 사이버 언어폭력도 다른 비행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한다면 부모와의 유대 등 사회유대와 통제가 약화된 아이들에게서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일반이론(자기통제이론)

Gottfredson과 Hirschi(1990)가 제시하고 있는 일반이론에 따르면 개인

의 안정된 성향으로서 낮은 자기통제력이 비행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 일반이론에서는 모든 일탈이나 비행은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만 설명된다고 주장한다. 일반이론에서는 대부분의 비행이 개인의 순간만족, 쾌락을 위해 충동적이고 사려 없이 즉흥적으로 일어난다고 보면서, 결국 비행의 원인도 이러한 비행발생의 특성에서 찾아야 한다고 본다. Gottfredson 과 Hirschi는 비행의 원인을 제시함에 있어 특별히 개인의 안정적 성향에 관심을 가졌는데, 순간만족과 충동을 통제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으로서 자기통제력의 수준이 모든 비행을 설명한다고 보았다. 자기통제력은 어려서 형성되며, 한번 형성되면 변하기 어려운 안정적 성향이기 때문에 결국 어려서 자기통제력이 어떻게 형성되는가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실제로 이 이론은 이후 최근까지의 연구에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Grasmick et al., 1993; Gibbs and Giever, 1995; Evans et al., 1997).

이 이론에서는 낮은 자기통제력이 비행의 유일한 원인이 되며, 부모와의 유대가 약한 것도, 또 비행친구와 사귀는 것도 낮은 자기통제력의 결과일 뿐 비행의 원인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 즉 어려서 자기통제력이 낮은 아이들이 커서 부모와의 유대가 낮고, 비행친구도 사귀며, 또 동시에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 사회유대이론에서처럼 부모와의 유대나 또 차별접촉이론에서처럼 비행친구와의 접촉이나 유해환경이 비행의 원인이 될 수는 없다고 본다.

이 이론에서 본다면 비행의 설명요인은 자기통제력만이라고 보기 때문에 사이버 언어폭력도 익명성과 상관없이 자기통제력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 볼 수 있다. 사이버상의 언어폭력의 경우 상대의 비난에 우발적으로 대응하거나 혹은 재미나 순간쾌락을 위해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본다면 일반이론에서처럼 익명의 상황과 관계없이 개인의 자기통제력 혹은 충동성향의 수준이 사이버 언어폭력을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III. 연구문제 및 방법

1. 연구문제의 설정

이 연구는 사이버상의 익명상황이 사이버 언어폭력의 원인이 되는지를 살펴보고 한다.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은 몰개성화이론이나 억제/합리적 선택이론을 중심으로 보면 청소년들의 언어폭력 가능성을 높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사회정체성이론은 익명상황이 집단동조를 일으킨다고 했지만 일부 경쟁집단에 가하는 언어폭력의 경우의 설명에만 국한되며, 또 자아의식이론에서는 그 영향력을 부정했지만 개인의 내적 태도가 어떤가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그 이론도 수정되어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처럼 일부 그 영향을 부정하는 논의가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는 기존의 익명성효과에 관한 연구들에서 주장되듯이 익명의 상황이 사이버 언어폭력을 유발할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한다.³⁾

그런데 이 연구는 사이버 언어폭력의 원인을 제시함에 있어 익명성의 영향력과 아울러 기존 비행연구에서 강조되었던 요인들의 영향력을 상호 비교하면서 어떠한 요인이 보다 중요한 원인이 되는지를 살펴보고 한다. 여기서 제시하는 기존 주요 설명요인으로는 부모와의 애정유대관계, 부모의 강압적 양육, 비행친구와의 접촉, 일반폭력용인태도, 사이버언어폭력용인태도, 그리고 자기통제력 등 여섯 가지이다. 즉 기존 비행이론들의 입장에서 보면 익명의 상황과 상관없이 기존 비행연구들에서 강조되어 왔던 것처럼 부모와의 유대가 약하고, 부모의 강압적 양육의 환경에서 자라

3) 이성식(2004)의 연구를 보면 익명의 상황이 처벌의 발각 가능성을 낮추기 때문에 언어플레이밍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즉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억제이론을 지지하지 못했듯이 익명성의 효과에 대한 논의도 억제/합리적 선택이론으로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며, 비행친구와 사귀고, 폭력을 용인하는 태도를 가지며, 사이버공간에서의 언어폭력이 그다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자기통제력이 낮은 충동적인 청소년들이 사이버공간에서 상대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들 논의들을 통합해서 본다면 사이버 언어폭력은 익명의 상황과 기존 전통이론들에서 강조되어 왔던 요인들이 필요충분조건이 되어야 더욱 더 발생하게 된다는 가설을 제시할 수 있다. 사이버상의 새로운 유형의 문제행동이라 해서 기존의 논의들을 무시한채 익명성만으로 그것을 설명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한 새로운 요인의 모색없이 오프라인상에서 중요했던 기존 논의들만을 고려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익명의 상황에서 누구나 다 언어폭력을 저지르는 것은 아니고, 익명의 상황에 있게 되는 청소년들이 특별히 부모와의 유대가 약하고, 부모가 강압적이며, 비행친구와 사귀고, 폭력과 사이버언어폭력에 대해 용인하는 태도를 가지며, 자기통제력이 낮은 경우에 한해 그러한 청소년들이 사이버공간에서 상대에게 언어폭력을 더욱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또 그러한 사회환경과 개인성향의 아이들이 언제나 사이버상에서 언어폭력을 저지르는 것은 아니고 그들이 익명의 상황에 있게 될 때 특별히 언어폭력의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어떠한 청소년들은 사회환경과 개인성향의 요인으로 비행의 가능성이 항상 충만하지만 비행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발각가능성이 낮다든지, 범행대상에 접근가능한 상황인지 등의 비행이 발생하기 용이한 상황이나 기회가 갖추어야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익명의 상황은 그러한 기회의 요건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익명성과 그러한 제반 요인들은 독립적으로도 사이버 언어폭력에 대하여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 이외에도 유의미한 상호작용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측하는 것이다.

이처럼 이 연구에서 주요 독립변인으로는 익명의 상황 이외에 부모와의 애정유대관계, 부모의 강압적 양육, 비행친구와의 접촉, 일반폭력용인태도,

사이버언어폭력용인태도, 그리고 자기통제력 등 여섯 요인의 영향력을 다루기로 하며 익명성과 이들 요인들과의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볼 것이다. 한편 기존 폭력연구에서 보면 여성보다는 남성이 폭력을 더욱 저지른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러한 이유로 성을 통제변인이자 또 다른 주요 독립변인으로 상정한다. 사실 언어폭력의 경우에서도 성차이는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남성은 주로 의사소통방식에서 자기주장이 강하고 또한 논쟁 중심적이고, 권위주의적 태도를 보이고, 또한 냉소주의적 특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계층변인도 언어폭력과 관련이 높을 수 있다. 기존의 주장에서 보면 하층의 청소년들이 폭력을 더욱 저지르게 된다고 하는데(Heimer, 1997), 사이버 언어폭력의 경우도 부모의 교육수준이 낮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하층 청소년들이 더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점에서 여기서는 이들 변인을 통제변인으로 다루기로 한다. 아울러 사이버 언어폭력의 가능성은 연령에 따라서도 다를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연령이 많은 매체경험이 많은 사람보다 초보자가 인터넷규범을 모르고 자신의 주장만을 펼치다가 언어폭력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Thompson, 1996).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연령을 또 다른 예측변인이자 통제변인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2. 연구방법 및 변인측정

1) 연구방법

본 연구가설의 직접적인 검증을 위해 질문지방법을 사용하였다. 사실 익명성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실험방법을 통해 인위적으로 한 집단은 실명으로, 다른 집단은 익명으로 사용하게 한 후 사용하는 언어를 서로 비교하여 살펴보도록 하는 방법이 유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익명성 이외에 다른 사회환경 및 개인 요인들을 상정하여 그 영향

력을 비교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실험방법보다는 설문지를 통해 조사하는 방법을 택했다.

이 연구의 조사 연구대상자는 전국을 표본으로 할 경우 시간과 비용의 문제 때문에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는 남녀 중, 고등학생으로 한정하였다. 중,고등학교의 선정은 각각 6개 학교를 선정하도록 하고 한 학교당 1,2,3학년 한 학급씩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선정된 학급 학생 전원에게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는 방식을 취했는데, 한 학급당 30여명씩, 한 학교로는 100여명씩의 학생을 선발하도록 설계를 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선정은 모집단의 비율대로 중학교의 경우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을 비율별로 고려하여 1개의 남자학교, 1개의 여자학교, 4개의 남녀공학학교를 선정하였고, 고등학교의 경우는 남녀공학이 적은 이유로 남학교 3개교와 여학교 3개교를 무작위로 선정하기로 했다. 이때 지역별 안배를 위해 크게 강남과 강북으로 나누고 각각 중앙, 서쪽, 동쪽으로 나눈 후 각 지역별로 한 개씩의 학교를 선발하기로 했으며 학교목록에서 난수표를 이용하여 학교를 선정함에 있어 처음 학교가 선정되면 다음 구역에서 학교가 선정될 때까지 무작위로 계속 선정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상으로 최종 12개 학교를 선정하였고, 각각의 학년에서 1개 반씩을 무작위로 하여 총 1113명을 조사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는 2003년 5월에 2주간에 걸쳐 실시하였다.

2) 변인측정

이 연구에서 다루려고 하는 주요 요인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사이버 언어폭력이란 게시판이나 대화방, 채팅, 이메일 등에서 대화내용 중 상대방에게 욕설이나 비방, 허위정보를 올리는 행위를 말한다. 사이버 언어폭력은 일명 플레이밍이라고도 한다. 플레이밍은 다양하게 정의되지만 사전적으로는 무관심한 주제에 비웃고, 실랄하게 격렬하게 끊임없이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Steel et al., 1983), 통상 욕설, 인신공격과 같

은 무례하고, 격렬한 적대감의 표출을 뜻한다(Lea et al., 1992; 이철선, 2003). 그러나 언어폭력이라고 할 때에는 상대방에 대한 단순한 욕설과 비속어의 사용이외에, 허위정보나 유언비어 유포, 명예훼손 행위, 그리고 음란한 대화나 글을 올리는 성희롱 등의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즉 우리가 흔히 사이버 언어폭력이라 할 때 좁은 의미로 볼 때에는 욕설과 비속어의 적대감 표출만을 다루지만, 넓은 의미로 볼 때에는 그와 같은 행위들을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사이버 언어폭력을 위해 세 가지 행동을 질문했는데, 첫째, 인터넷상에서의 욕설이나 비방, 둘째, 허위정보나 유언비어 유포와 명예훼손, 셋째로 음란한 대화나 성희롱을 했는지를 각각 지난 1년간의 경험과 빈도를 질문하였고, ‘없다’, ‘일년에 한두번’, ‘두세달에 한번’, ‘한달에 한번’, ‘일주일에 한두번 이상’에 해당되게 재부호화하여 0점에서부터 4점까지 점수를 부여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독립변인인 익명성은 인터넷게시판이나 채팅, 토론방에서 주로 실명을 사용하는지, 아니면 익명을 사용하는지를 질문하고 “주로 실명으로 한다”에서부터 “주로 익명으로 한다”에 이르는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가정환경요인으로 부모와 애정유대관계는 부모의 애정과 또한 자녀가 부모에게 갖는 애착을 모두 질문하였는데,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부모님은 나에게 무관심하다”(재부호화), “부모님은 나를 잘 이해하신다”, “나는 부모님이 좋다”, “나는 부모님에게 만족한다” 등 다섯 문항을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에 이르는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했다 ($\alpha=.769$).

부모의 강압적 양육은 “부모님은 나에게 손찌검을 하신다”, “부모님은 나를 혼내실 때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하신다”, “부모님은 나를 몽둥이로 때리신다”의 세 문항으로 질문을 하였고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했다 ($\alpha=.745$).

비행친구와의 접촉을 위해서는 친하게 지내는 친구 중 비행으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은 친구의 수로 알아보았고, “없다”, “1명”, “2-3명”, “4-6명”, “그 이상”에 응답하도록 했다.

폭력용인태도는 “남을 때리고 폭행하는 것은 나쁜 행동이다”라는 하나의 질문에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고 최종적으로는 역으로 재부호화하였다.

사이버 언어폭력에 대한 용인태도는 본 연구에서 다룰 세가지 언어폭력 행동 각각에 대해 얼마나 나쁘다고 생각하는지를 5점 척도로 묻고 그것을 합산한 후 역으로 재부호화하였다.

자기통제력은 충동성, 위험추구성, 현재지향성, 무계획성을 나타내는 문항들(Grasmick et al., 1993), 즉 “나는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나는 재미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는 경우가 있다” 등 9개 문항을 사용하고 역으로 재부호화 하였다($\alpha=.808$).

아울러 본 연구에서 사용할 통제변인으로 성, 연령 이외에 응답자 부모의 교육수준과 가족의 수입 등 가정구조적 변인을 위해 부모의 교육수준은 아버지, 어머니의 교육수준을 각각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에 응답하도록 하고, 또한 가족의 수입은 한달 평균수입을 ‘100만원 이하’, ‘101-200만원’, ‘201-300만원’, ‘301-400만원’, ‘401만원 이상’에 응답하도록 했다.

IV. 분석결과

1. 조사대상자의 특성

먼저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사회배경적 특성을 살펴보면 총 대상자

1113명 중 남학생이 559명으로 50.2%를, 여학생이 554명으로 49.8%를 차지해 거의 동일하게 조사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13세부터 20세까지 분포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비슷한 수로 조사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14세에서 19세에 각 연령별로 고르게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계층적 변인의 요소를 살펴보면 먼저 응답자들의 부모님 중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대졸이 560명(50.3%)으로 다소 많았고, 어머니는 고졸이 622명(55.9%)으로 대졸 353명(31.7%)보다 많아 아버지 학력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수입을 통해 경제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살펴보면 가족의 월수입이 200만원대가 245명(22.0%)으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대 211명(19.0%), 300만원대도 200명(18.0%)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1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의 가정은 65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5.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주요 변인들에 대한 기술적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주요 변인들에 대한 기술적 분석의 결과에서, 먼저 응답자들이 채팅이나 게시판에서 익명으로 대화를 나누는지의 결과를 보면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완전 익명의 상태로 대화를 나누는 경우는 73명(6.6%)이었고, 대체로 익명을 사용한다는 응답은 228명(20.5%)으로 응답자의 27.1%가 익명으로 대화를 나누는 결과를 제시했다. 익명과 실명의 사용이 거의 반반이라는 응답은 304명(27.3%)이었고, 응답자의 44.9%가 실명으로 대화를 한다는 응답을 보여 익명의 경우 27.1%보다 실명으로 대화를 더 나누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이 결과는 익명의 상황에서 이용하는 경우가 예상보다 많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많은 학생들이 이메일의 사용에서 실명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최근 실명을 원하는 사이트가 증가한데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표 1> 익명성의 빈도

	빈도	비율 (%)
완전 실명	142	12.8
실명	357	32.1
반반	304	27.3
익명	228	20.5
완전 익명	73	6.6
무응답	9	.8
합계	1113	100

한편 기존의 폭력비행연구에서 주요 요인들로 다루어졌던 요인들에 대한 기술적 통계분석의 결과를 보면 <표 2>에 제시된 것처럼, 먼저 부모와 응답자간의 애정, 유대관계는 5-25범위에서 평균점수가 20.143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가 매와 폭력을 사용하는 강압적인 양육의 경우는 3-15범위에서 5.930으로 그 평균점수가 낮은 것으로 제시되었다. 비행친구의 수의 경우 평균점수가 1.491로 매우 낮아 응답자들은 비행친구가 있는 아이들이 적었으며, 폭력을 용인하는 태도도 1-5범위에서 2.117로 낮게 나타나 일반적으로 응답자들은 폭력을 용인하지 않고 그 행동이 나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이버공간에서의 언어폭력에 대한 태도는 평균이 4.494로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그것이 매우 나쁘다고 응답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자기통제력의 경우는 9-45범위에서 평균점수가 28.920으로 전반적으로는 중간보다 다소 높은 정도로 제시되었다.

<표 2> 기존 주요요인들에 대한 기술적 통계분석 결과

	평균	표준편차	범위
부모유대	20.143	3.272	5-25
부모강압	5.930	2.604	3-15
비행친구	1.491	1.029	1-5
폭력태도	2.117	.879	1-5
사이버언폭태도	4.494	2.154	3-15
자기통제력	28.920	5.856	9-45

<표 3> 사이버 언어폭력에 대한 기술적 통계분석 결과

	평균	표준편차	범위
욕설비방	.440	.866	0-4
허위정보	.116	.466	0-4
음란대화	.084	.422	0-4
언어폭력전체	.636	1.281	0-12

한편 응답자들이 사이버공간에서 얼마나 언어폭력을 하고 있는지의 지난 일년간의 경험 횟수를 보면 그것을 욕설비방, 허위정보의 유포, 그리고 음란대화의 경우로 각각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욕설비방의 경우는 그런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825명으로 전체의 74.1%를 차지했고, 허위정보나 유언비어의 유포의 경우는 그런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1028명으로 전체의 92.4%, 음란대화의 경우는 1055명인 전체의 94.8%를 나타내, 이처럼 청소년들은 단순한 욕설이나 비속어의 사용의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응답자의 4명 중 1명이 그런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허위정보나 유언비어의 유포, 그리고 음란대화의 경험은 극히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익명성과 사이버 언어폭력: 다중회귀분석 결과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상황이 사이버 언어폭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기 위해 응답자들의 사회배경변인들을 통제변인으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를 보면, <표 4>에 제시되듯이 익명의 상황이 사이버 언어폭력에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익명의 상황에서 청소년들은 언어폭력을 더 저지르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 분석결과에 따르면 계층관련 배경변인들 중 부모의 교육수준의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가족수입이 많은 잘 사는 청소년들이 $p<.05$ 수준에서 언어폭력을 더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남자학생들이 여자학생들보다 $p<.001$ 수준에서 더 언어폭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의 영향력은 $p<.10$ 수준에서 연령이 적을수록 사이버공간에서 언어폭력을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익명성의 사이버언어폭력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사이버언어폭력	
	b	β
남성	.375***	.150
연령	-.043	-.061
부교육	-.138	-.066
모교육	.092	.044
수업	.092*	.090
익명성	.117**	.106
상수	.528	
R제곱	.049***	
F검증		

* $p<.05$; ** $p<.01$; *** $p<.001$

<표 5>는 익명성과 기존 연구들에서 폭력을 설명하는 데 있어 사용되어 왔던 주요 원인들과의 비교를 위해 그들을 함께 독립변인들로 하여 사이버 언어폭력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지의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를 제시한다. 그 결과를 보면 다른 주요 변인들을 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익명성의 영향력은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사이버상의 익명상황이 언어폭력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익명성 이외의 변인들의 영향력을 보면 사이버 언어폭력에 대한 태도의 영향력이 $p<.001$ 수준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사이버 언어폭력이 그다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언어폭력을 더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비행친구와의 접촉의 영향력도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비행친구와 사귀는 아이들이 언어폭력을 더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자기통제력의 영향력도 비행친구와의 접촉보다는 그 영향력이 작았지만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이버공간상의 언어폭력은 익명의 상황이외에 행위자들의 사회, 개인적인 요인으로서 사이버언어폭력의 용인태도, 비행친구와의 접촉, 그리고 낮은 자기통제력에 의해 더 잘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부모의 애정이나 부모의 강압적 양육 같은 가정요인이나 일반적인 폭력에 대한 태도의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 익명성과 기존 주요요인들의 사이버언어폭력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사이버언어폭력	
	b	β
남성	.192*	.078
연령	-.066**	-.093
부교육	-.069	-.034
모교육	.015	.007
수입	.052	.052
익명성	.096**	.089
부모유대	.019	.048
부모강압	.001	.002
비행친구	.221***	.186
폭력태도	.028	.020
사이버언어폭력태도	.111***	.193
자기통제력	-.026***	-.119
상수	.935	
R제곱	.139***	
F검증		

* $p<.05$; ** $p<.01$; *** $p<.001$

<표 6> 익명성과 기존 주요요인들의 사이버언어폭력에 대한 상호작용효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사이버언어폭력	
	b	β
남성	.172*	.070
연령	-.066**	-.093
부교육	-.066	-.032
모교육	.020	.010
수입	.042	.041
익명성	.082	.076
부모유대	.002	.001
부모강압	-.007	-.013
비행친구	.174**	.146
폭력태도	.060	.042
사이버언어폭력태도	.031	.054
자기통제력	-.033**	-.152
익명*부모유대	.033	.077
익명*부모강압	.017	.046
익명*비행친구	.087	.072
익명*폭력태도	.085	.041
익명*사이버언어폭태도	.143***	.199
익명*자기통제	-.012	.069
상수	-.461	
R제곱	.155***	
F검증		

*p<.05; **p<.01; ***p<.001

익명성과 다른 요인들이 필요충분조건이 되어 그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이버상의 언어폭력을 설명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익명성과 부모애정, 부모의 강압적 양육, 비행친구와의 접촉, 폭력용인태도, 사이버언어폭력태도, 그리고 자기통제력간의 상호작용효과의 영향력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는 <표 6>에 제시되듯이 비행친구와의 접촉이나 자기통제력은 각기 독립적으로 사이버 언어폭력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쳤고, 익명성과 다른 기존의 주요 요인들간에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

으나 익명성과 사이버언어폭력에 대한 태도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즉 사이버 언어폭력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갖는 아이들이 익명의 상황에서 더 언어폭력을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분적으로 익명성의 효과에 대한 통합론적 설명이 다소 설득력이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상황이 과연 청소년들의 언어폭력에 있어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는지를 경험연구를 통해 살펴보려는 것에 목적이 있었다. 이 연구는 또한 익명성의 영향력과 아울러 기존 비행연구에서 강조되었던 요인들의 영향력을 상호 비교하면서 어떠한 요인이 보다 중요한 원인이 되는지를 살펴보고 했다.

이 연구결과에서는 익명의 상황이 사이버 언어폭력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익명의 상황에서 청소년들은 언어폭력을 더 저지르게 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익명성이외의 변인들의 영향력을 보면 사이버 언어폭력에 대한 태도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익명성과 상관없이도 사이버 언어폭력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사이버 언어폭력을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비행친구와 사귀는 아이들, 그리고 자기통제력이 낮고 충동적인 아이들이 언어폭력을 더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익명상황보다 더 크게 나타나 사이버공간상의 언어폭력은 익명의 상황이외에 행위자들의 사회, 개인적인 요인들에 의해 더 잘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본 결과를 보면 부모의 애정이나 부모의 강압적 양육과 같은 가정요인이나 일반적인 폭력에 대한 태도의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

로 조사되었다. 기존 비행연구에서도 비행유형과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처럼 비행친구와의 접촉이나 자기통제력은 사이버 언어폭력에서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난 것과 달리 특별히 강압적 양육이나 일반적인 폭력에 대한 태도의 영향력이 중요하지 않았다는 결과는 사이버언어폭력이 신체적 접촉을 요하는 오프라인상의 폭력과는 다소 그 설명에 있어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일반 폭력태도의 경우와 달리 사이버 언어폭력에 대한 태도의 영향력은 중요했다는 점에서 보면 그것을 더욱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익명성과 다른 요인들이 필요충분조건이 되어 그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이버 언어폭력을 설명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익명성과 부모애정, 부모의 강압적 양육, 비행친구와의 접촉, 폭력용인태도, 그리고 자기통제력간의 상호작용효과의 영향력은 모두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익명성과 사이버언어폭력에 대한 태도간에는 유의미한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나 본 연구의 예측을 부분적으로만 지지하는 결과를 제시했다. 즉 기존 이론들에서처럼 익명성과 다른 요인들은 각기 독립적으로 사이버상의 언어폭력을 설명했지만, 익명성과 사이버 언어폭력에 대한 태도는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이버 언어폭력을 설명한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제시했던 자아의식이론을 통해서 설명이 가능하다. 즉 익명의 상황에 있게 되면 사적 자아의식이 더욱 작동되고 그렇게 되면 행위자들은 그들이 본래 가지고 있던 내적 태도대로 행동한다고 했는데, 본 연구에서 익명성과 사이버 언어폭력에 대한 태도간에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난 것은 이 논의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이 결과는 익명의 상황에서 함께 작동하는 요인들은 내적 태도와 같은 일부 요인에 국한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다만 앞서 지적했듯이 사이버 언어폭력은 일반적인 현실의 폭력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폭력에 대한 일반적 태도는 중요하게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들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통합론적 논의보다는 익명성과 사이버언어폭

력에 대한 태도간의 상호작용효과도 자아의식이론을 검증했다는 점에서 대체로 기존의 이론들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익명의 상황은 분명 청소년들의 사이버공간에서의 언어폭력을 야기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혹자는 실명제 방안을 거론한다. 인터넷의 과급성과 광범위적인 영향력에 비추어본다면 익명의 상황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며 무차별적 욕설을 막고 책임있는 언행을 도모하기 위해 자신의 실명을 밝히고 대화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실명제 방안은 여러 가지 면에서 비판을 받는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표현의 자유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시된다. 욕설과 비방의 위험 때문에 실명을 하게 하는 것은 토론의 장이나 의견을 나누는 장에서 적절한 의견과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만들 수 있다. 실명으로 인해 자신이 나중에 비판과 공격을 받을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에 적절한 비판과 논쟁이 자유롭지 못하고 자제된다면 이는 언론의 자유에 중대한 제약이며, 또 보다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됨으로써 건설적인 의견의 개진이나 더 나아가서는 민주주의 발전에도 손상을 입힐 수 있다. 실명의 경우라면 특별히 사회적 약자인 경우 힘없이 나중에 더 많은 피해와 손해를 입지 않을까 하여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더욱 더 적어지는 문제를 앎고 있다. 더군다나 언론의 자유가 사회적으로 보장된지 얼마 안되는 실정에서 익명성을 제한하는 조치는 문제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본 연구에서 익명성이 언어폭력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에서 미루어 실명제가 조심스럽게 거론될 수도 있겠지만 사이버 언어폭력을 익명성의 문제로만으로 파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익명성과 독립적으로 사이버공간에서의 언어폭력에 대해 갖는 태도가 가장 중요했듯이 언어폭력이 크게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언어폭력을 많이 한다는 점에서 그것이 상대에게 해가 될 수 있고, 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윤리교육이 아울러 보다 강조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익명성의 영향력도 그러한 청소년들에 한하여 언어폭력을 유발한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이는 익명성의 차단이라는 기술적 차원의 대책이나 실명제라는 대책보다는 사회차원의 노력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 즉 윤리교육과 아울러 더 나아가 사이버공간에서 언어폭력을 추방하기 위한 사회문화차원의 정화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실제로 욕설은 오히려 청소년들에게 친근감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미화되고 또 크게 나쁘지는 않은 것으로 인식되며, 사이버공간의 문화에서 욕설은 당연한 것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자기통제력이 낮은 충동적인 아이들이 사이버 언어폭력을 더 많이 한다는 점에서 늘 신중하게 생각하여 자신이 행한 행동의 결과를 항상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교육도 아울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또 비행친구와 어울리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가정이나 사회에서의 관심도 필요한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사이버 언어폭력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청소년들의 모든 문제행동과 연관되는 사항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익명의 상황이 사이버 언어폭력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했지만, 이렇듯 익명의 상황과 연관될 수 있는 대책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본다.

참 고 문 헌

- 김경원 (2000).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의 익명성이 커뮤니케이션 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봉섭 (1998). PC통신에서의 언어폭력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인우, 김미향 (2000). 동기적 가상토론에서 익명성이 토론내용의 논증과 부정적 발언에 미치는 영향. 교육공학연구, 16권 4호, pp. 91-106.
- 이성식 (1998). 비행친구와 비행과의 관계: 통합론적 논의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37호, pp. 193-221.
- 이성식 (2004).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이 언어플레이밍에 미치는 영향에서의 경로모델의 제시와 검증. 형사정책, 15권 2호, pp. 27-56.
- 이철선 (2003). 가상공동체에서의 플레이밍에 관한 연구. 마케팅연구 18권 1호, pp. 3-30.
- 최영, 이종민, 김병철 (2002). 인터넷신문의 공론장 역할에 관한 연구: 토론참여자의 익명성과 토론매개자의 신분이 토론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2권 2호, pp. 115-158.
- Cernkovich, S.A. and Giordano, P.C. (1987). Family relationships and delinquency, *Criminology*, 25, pp. 295-319.
- Evans, T.D., Cullen, F.T., Burton, V.S., Dunaway, R.G. and Benson, M.L.. (1997). The social consequences of self-control: testing the general theory of crime, *Criminology*, 35, pp. 475-501.
- Felson, R.B. (1996). Big people hit little people: sex differences in physical power and interpersonal violence, *Criminology*, 34(3), pp. 433-52.
- Felson, R.B., Liska, A.E., South, S.J. and McNulty, T.L.. (1994). The subculture of violence and delinquency: individual vs. school

- context effects, *Social Forces*, 73, pp. 155-73.
- Fulk, J., Schimitz, J., and Stainfield, C.W. (1990). A social influence model of technology use. In J. Fulk and C. Steinfield(eds.), *Organizations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 Gibbs, J.J. and Giever, D. (1995). Self-control and its manifestations among university students: an empirical test of Gottfredson and Hirschi's general theory of crime, *Justice Quarterly*, 12, pp. 231-5.
- Gottfredson, M. and Hirschi, T. (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 Grasmick, H., Tittle, C.R. Bursik, Jr. R. and Arneklev, B.J. (1993). Testing the core empirical implications of Goittfredson and Hirschi's general theory of crim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0, pp. 5-29.
- Heimer, K. (1997). Socioeconomic status, subcultural definitions, and violent delinquency, *Social Forces*, 75, pp. 799-833.
- Hirschi, T. (1969). *Causes of Delinquenc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Kiesler, S., Siegel, J. and McGuire, T.W. (1984). Social psychological aspects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American Psychologist*, 39, pp. 1123-34.
- Lea, M., O'Shea, T., Fung, P. and Spears, R. (1992). Flaming in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In M. Lea(ed), *Contexts in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London: Harvester Wheatsheaf.
- Matheson, K. and Zanna, M.P. (1988). The impact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on self-awareness, *Computers*

- in Human Behavior*, 4, pp. 221-233.
- Matsueda, R.L. (1982). Testing control theory and differential associations: a causal modeling approac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7, pp. 489-504.
- Paternoster, R., Saltzman, L., Chiricos, T.G., and Waldo, G.P. (1983). Perceived risk and social control: do sanctions really deter? *Law and Society Review*, 17, pp. 457-479.
- Patterson, G. (1982). *Coercive Family Process: A Social Learning Approach*. Eugene, OR: Castalia.
- Postmes, T. and Spears, R. (1998). Deindividuation and anti-normative behavior: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02, pp. 238-59.
- Prentice-Dunn, S. and Rogers, R.W.. (1982). Effects of public and private self-awareness on deindividuation and agg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3, pp. 503-13.
- Reicher, S.D., Spears, R. and Postmes, T. (1995). A social identity model of deindividuation phenomena. In W. Stroebe and M. Hewstone(eds.),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vol 6. Chichester: Wiley.
- Short, J.A., Williams, E. and Christie, B. (1976). *The Social Psychology of Telecommunication*. Chichester: John Wiley.
- Steel, G., Woods, D., Finkel, R., Crispin, M., Stallman, R., and Goodfell, G. (1983). *The Hacker Dictionary*. New York: Haper and Row.
- Sproull, L. and Kiesler, S. (1986). Reducing social context cues: electronic mail in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Management Science*, 32, pp. 1492-1512.
- Tittle, C.R. (1980). *Sanctions and Social Deviance: The Question of Deterrence*. New York: Praeger.

Widom, C.S. (1989). Child abuse, neglect, and violent criminal behavior, *Criminology*, 33, pp. 359-87.

Zimbardo, P.G. (1969). The human choice: individuation, reason, and order vs. deindividuation, impulse and chaos. In W.J. Arnold & D. Levine(eds.),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ABSTRACT

The Effects of Anonymity on Cyber Flaming: Comparing Its Effect with Social and Individual Factors

Lee, Seong-Sik^{*}

This study intends to test the effect of anonymity on cyber flaming behavior. In addition, this study compares its effect with social and individual factors emphasized in prior research on violent delinquency and also tries to test an integrated model. Using data from 1113 male and female middle/high school student in Seoul, this article examines the each independent effect of anonymity, affectional bonds with parents, parental coercive maltreatment, associations with delinquent peers, attitudes favorable to violence, attitudes favorable to violence on cyber-space, and self control on online violent delinquency and also the interaction effect of anonymity with other variables. Findings reveal that the effect of anonymity is significant, but the effect of attitudes favorable to cyber flaming is largest, and the effects of association with delinquent peers and low self-control are significant. Results also show that the interaction effect of anonymity with attitudes favorable to cyber flaming is significant.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ose results are discussed.

Key Words : cyber-space, anonymity, flaming

투고일 : 4월 27일, 심사일 : 6월 8일, 심사완료일 : 6월 22일

* Soongsil University